

10-2-2022 10 a.m.

세계성찬주일 연합예배



World Communion Sunday

우드릿지교회

Woodridge Congregational Church

제일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of Rhode Island

입장의 예전 | *Liturgy of Entrance*

- 식전 연주 Gathering Music | Sandy Nolan, organist
- 공동관심사의 나눔 Announcement | 정정욱 장로, Woodridge 회중 대표
- 여는 기도와 주기도 Opening Prayer and The Lord's Prayer | 한/영 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영어로, 굵은 글씨만 읽습니다

One: Today we gather around God's table from many places and many cultures.
All: We are the People of God!

One: Though we differ in language, custom, and tradition
All: We are the People of God!

One: For there is one Lord, one faith, and one baptism
All: We are the People of God!

One: We are one and together we remember our Lord Jesus
All: We are the People of God!

- 시편 낭송 Scripture Reading | Psalm 133 | 이길자 장로 *한국어로*

- 1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 2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3 헤르몬 산에서 시온 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 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1 How very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kindred live together in unity! 2 It is like the precious oil on the head, running down upon the beard, on the beard of Aaron, running down over the collar of his robes. 3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which falls on the mountains of Zion. For there the Lord ordained his blessing, life forevermore.

성찬 예식 |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우리 성찬 테이블은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등록교인 여부나 소속은 관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고자 하는 모든 연령대를 환영하며 자녀가 참여해야 하는 연령에 대한 결정은 부모에게 맡깁니다. *Our communion table is open to all who wish to receive, regardless of church membership or affiliation. We welcome all ages to receive communion today and leave the decision to parents at what age their children should participate.*

○ 고백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 영어로, 굵은 글씨만 읽습니다

One: God of compassion and mercy, we bring our wounded selves, our divided society, and our broken world seeking your healing and transforming grace.

All: Lord, hear our prayer.

One: It can be easy to point the finger at others, yet we know that we all need your forgiveness.

All: Lord, hear our prayer.

One: Break down the walls of hatred, distrust and bitterness and open a way for us to reach one another in truth and love.

All: Lord, hear our prayer.

One: Enable us to build a society where all can belong and to share our gifts in mutual respect as we seek a new future which you offer us through Jesus the Christ.

All: Lord, hear our prayer.

○ 사죄 선언 Assurance of God's love and forgiveness

○ 초대말씀 Words of Invitation |

○ 성찬 기도 Communion Prayer | 영어로, 회중은 굵은 글씨만 읽습니다

Pastor: God be with you.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People: And also with you.

또한 그대와 함께

Pastor: Lift up your hearts.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People: We lift them to God.

드높이 올립니다.

Pastor: Let us give thanks to God.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People: It is right to give God thanks and praise.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제정사 Jesus' words for communion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느님,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온 세상에 알리나이다.

○ 축성 기도 Prayer of blessing |

○ 배병 배잔 Bread and Juice served to the community | 1 인용 성찬용품으로

○ 감사 기도 Prayer of Thanksgiving | 한/영 한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선물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오니, 주를 향한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타인을 향한 우리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thank you, God, for inviting us to this table where we have known the presence of Christ and have received all Christ's gifts. Strengthen our faith, increase our love for one another, and let us show forth your praise in our lives;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Amen.

○ 평화의 인사 Passing the Peace |

말씀의 예전 | *Liturgy of the Word*

○ 성서 봉독 *Scriputre* |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2: 12 – 15*

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13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14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2For just as the body is one and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many, are one body, so it is with Christ. 13For in the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Jews or Greeks, slaves or free—and we were all made to drink of one Spirit. 14Indeed, the body does not consist of one member but of many.

○ 설교 *Sermon* | *일치와 다양성 Unity and Diversity* | Rev. Scott

Once upon a time - a queen owned a beautiful garden that she lovingly took care of. 옛날 옛적에 한 여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정성을 다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morning - she walked into her garden and found many of the trees and plants withered and dying. 어느날 아침, 정원에 들어가봤더니 글썽 말라가거나 죽어가는 나무가 한 둘이 아닌거예요.

She was worried and wanted to know why. 여왕은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So she first asked a great oak tree near the gate of the garden. 그래서 먼저 문 앞에서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And learned that it was sick because it was angry and resentful that it wasn't as beautiful as the pine tree. 그랬더니 자기가 소나무만큼 아름답지 않은 게 화나고 분해서 아팠다는 거예요.

When she spoke to the pine tree
소나무에게 물어봤을 때는
she learned that it was upset that it couldn't bear
delicious fruit like the pear tree. 자기가 배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While the pear tree complained that it did not have the
lovely smell of the spruce tree. 배나무는 가문비
나무처럼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고요.

And so it went throughout the entire garden - plants
and trees resentful and angry at other plants and trees.
이런 분위기가 정원 전체에 퍼져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서로에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Finally, coming to a little pansy - the queen saw its
bright face full of joy. 마지막에 어린 팬지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선 기쁨으로 가득찬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Well, little flower, I’m glad that at least one of you is happy.” “저기, 작은 꽃 친구야, 적어도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행복해서 참 좋구나.”

“Your majesty,” said the little pansy, “I know I am the smallest and least significant plant in your great garden. But I decided that you wanted a pansy in your garden. Therefore, I am determined to be the very best pansy that I can be!” 팬지가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식물인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왕님께서 이 정원에 바라시는 팬지 한 송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팬지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And then the queen realized that all the plants and trees had different gifts to offer. 그 순간 여왕은 모든 식물과 나무가 줄 수 있는 각각의 선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ut that all were needed to make the garden complete, to make the garden whole 그 모든 것들이 정원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했음을

As wonderful as the early Christian communities were – there was apparently lots of conflict and division/resentment and anger. 초대 교회 공동체가 훌륭했던 것 만큼, 분명히 수 많은 갈등과 분열 / 분노와 화가 있었습니다.

The church in Corinth was like all communities then and now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와 같았습니다. Including church communities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요.

They are made up of diverse people with all kinds of interests and agendas and ways that they think is best to do something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관심사와 사역에 대한 토론거리들, 그리고 방법들, 즉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해야 할 가장 좋은 일들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Sometimes even people that can be hard to get along with 때로는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But remember when it comes to the church community - that if any of us had to be perfect to join – none of us could be members.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라도 완벽해야지 다닐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Paul understands the imperfection of the church community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불완전함을 이해합니다.

And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that can come with diverse personalities and behaviors.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요.

And that is why he wrote these words I just read from the Bible. 바울은 그런 의미를 담아 제가 방금 읽은 성서 본문을 썼습니다.

Few of us – except perhaps doctors and nurses and other medical professionals 아마도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별로 think much about how our bodies work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except of course when they break down 몸이 고장날 때를 제외하고는요.

We hardly ever think about how all thos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우리는 신체의 모든 다른 부분들이 어떠한 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Hearts and brains, Eyes and ears, Fingers and toes have different jobs to do to keep our overall body working. 심장과 뇌, 눈과 귀, 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작동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별개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For example – just think about me up here this morning.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여기 서 있는 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세요.

Having a thumb helps turn the pages of my sermon. 손가락이 있어서 설교문을 넘길 수 있고요, And my heart to keep me alive. 심장이 저를 계속 살아 있게 하고요, And a brain to think and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뇌가 생각하게, 눈이 보게, 그리고 귀가 듣게 합니다.

The point (which is Paul's point) is 바울의 관점에서 핵심은 Our survival does not depend on the parts of the human body being the same 우리의 생존이라는 것은 신체 각 부분이 모두 같다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But on them being different - the parts being diverse 다르다는 것, 곧 다양하게 존재하는 각 지체에 달려 있습니다.

In the human body there is “unity in diversity.” 사람의 몸에는 “다양성 속의 일치”가 있습니다.

For just as the body is one and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many, are one body, so it is with Christ.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12 절)

Indeed, the body does not consist of one member but of many.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4 절)

There needs to be “unity in diversity” in the human body. Just as there needs to be “unity in diversity” in the church. 사람의 몸은 “다양성 속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we are to see this as a strength 우리는 이것을 강점으로 볼 것입니다. Just as today we are stronger as 2 diverse communities joined together in worship Woodridge and the First Korean church of RI 오늘 우드릿지와 제일한인교회 라는 두 다양한 공동체가 연합 예배로 강해진 것처럼요.

In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 all members are valued equally.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모든 회중은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From the youngest to the oldest, The newest member to longest term member, Men and women, Teenagers and senior citizens, Clergy and lay people 남녀 노소, 신앙 연합, 직분을 불문합니다.

In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 we are not to value others by their appearance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외모로 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Or their performance 혹은 사역 성과나, Or how smart they are 얼마나 똑똑한지나 - or how much money they have 아니면 얼마나 부유한지로 소중히 여김 받을 수 없습니다.

Instead – we are all of equal value in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그저,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All are equally needed

To strengthen our church communities

Through “unity in diversity”

우리 모두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Let me finish with another story from nature
From a book by RI clergyman – Rev John Griswold
또 다른 자연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존 목사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One day – right here in RI - a very young child asked her grandfather 어느날, 바로 여기 로드 아일랜드에서, 아주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Why are there so many different color leaves in the fall?” “할아버지, 왜 가을에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된 잎이 많아요?”

And her wise grandfather told her this story.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 God decided to hold a contest to choose the most beautiful color leaf of all. But this was a big job – so God asked an angel to oversee the contest.

옛날 오래 전에, 하느님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된 나뭇잎을 뽑는 경연을 열기로 했단다.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천사에게 이 행사를 일임했단다.

All the leaves were really excited. And they all lined up in an orderly row to be picked the most beautiful color of all 나뭇잎들은 너무 신났지.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뽑히려고 전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섰단다.

There was every color you could think of – greens; reds; oranges; browns and yellows.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색깔들이 있었어. 녹색, 빨강, 주황, 갈색, 그리고 노랑.

The angel looked over the neat rows of leaves. And said this is a big job. And I need a break 천사가 가지런히 줄 지어 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지. “너무 많은데?” “좀 쉬어야겠어”

While the angel took a break, the leaves decided they needed a break from standing in these neat rows. 천사가 쉬는 동안, 나뭇잎들도 깔끔하게 줄서 있는 것을 잠시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

So they started mixing and talking and having fun. 그래서, 나뭇잎들끼리 서로 섞이고, 대화하고, 재밌게 놀기 시작했지.

When the angel saw how beautiful all the different color leaves were mixed together, the angel decided. 여러가지 빛깔의 나뭇잎들이 한데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가 보고서는 한 가지 결심을 한거야.

Since all the colors are so beautiful – I am going to recommend that God shuffle them all together. And that is what God did. 모든 색깔들이 너무 아름답기에, 하느님께 그 모든 나뭇잎들을

섞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God created the fall season with all the different colors - all mixed together 하나님은 모든 빛깔로, 모두 섞어서 사계절을 창조하셨습니다.

Each different - but so much more beautiful when mixed together. 각기 다르게, 그러나 한데 섞여 있을 때 훨씬 아름답게 말입니다.

For just as the body is one and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many, are one body, so it is with Christ.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12 절)

Indeed, the body does not consist of one member but of many.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4 절)

파송의 예전 | *Liturgy of the Sending*

- 특별 연주 Special Music | Sandy Nolan, organist
- 기도 제목 나눔 Prayer Concerns and Celebrations |
- 봉헌 Offering dedication |
- 영광송 Doxology | 만 복의 근원 하나님 *한/영 한 목소리로*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God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만 복 의 근 원 하 나 님 온 백 성 찬 송 드 리 며 저

5
God a - bove ye heav-'nly host, Cre - a - tor, Christ and Ho - ly Ghost. A - men
천 사 여 찬 송 하 세 찬 송 성 부 성 자 성 령 아 멘

- 성가대 찬양 Anthem |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 연합 성가대

*based upon a traditional Korean folk song - Arirang, First Korean and Woodridge choirs,
Nancy Quintiliani - flute; Rev. Eunjung Yang - janggu traditional Korean drum*

○ 찬교 찬양 Communion Hymn | 영어로

Let us break bread to-gether on our knees, (Let us break bread to-
(Let us drink wine to-gether on our knees,) Let us drink wine to-
Let us praise God to-gether on our knees, (Let us praise God to-
geth-er on our knees.) When I fall on my knees with my face to the ris-ing
geth-er on our knees. (When I fall on my knees with my face to the ris-ing
geth-er on our knees.) When I fall on my knees with my face to the ris-ing
sun, (O Lord have mer-cy on me.)
sun,) O Lord have mer-cy on me.
sun, (O Lord have mer-cy on me.) O Lord have mer-cy on
me.

○ 찬송 Hymn |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영 한 목소리로, Verses 1,2 and 3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침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 축도 Benediction

○ 응답 찬송 Benediction Response | 내 평생에 가는 길 *한/영 한 목소리로, Verse 1*

내 평생에 가는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강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영혼 평안해

○ 후주 Postlude | Sandy Nolan, organist

